

# "나는 기생충이야"

간흡충 (肝吸虫, 肝디스토마)편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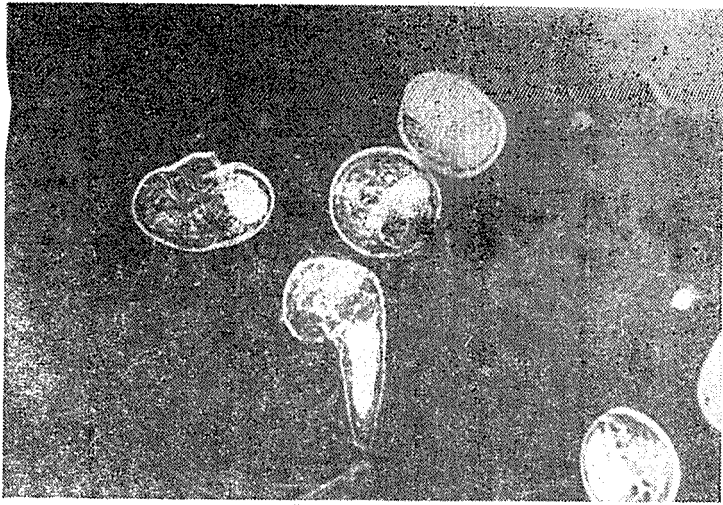
李 純 炯

그한에로는파나마에 이민간 중국사람이 죽었는데 부검을 하여보니 간속에 우리 간흡충이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중국사람은 중국을 떠난지 25년이 되었고 이민후 한번도 파나마를 떠난 일이 없었다 합니다. 다른 한 예는 이민 온지 30년이나 되는 중국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역시 태변에서 우리 간흡충의 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니, 우리 간흡충의 최고 수명은 적어도 25~30년이나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간흡충은 기생충중의 동방삭(東方朔)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사람이 얼마나 많은 우리 간흡충에 감염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9491마리를 한 환자에서 발견했다고 하고 다른 분은 10,000마리를 그리고 인도지나의 어떤 학자는 최

고 21,000마리 기생한 환자를 보고 한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1,000마리가 일시에 감염되면 환자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외에도 개, 고양이같은 동물도 우리 간흡충에 걸려서, 우리 간흡충란을 배설하므로써 자연계를 오염시키고 다시 인체감염의 기회를 만드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동물들을 보유숙주(保有宿主)라 합니다. 이런 보유숙주는 사람이 먹다 남은 민물고기를 먹여서 감염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밖에 물을 먹어서 우리 간흡충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으나 이것은 병의 원인을 확실히 알기전에 민간에서 이르던 속설(俗說)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물고기가 죽어서 썩어 그 속에 있던 피낭유충이 물속으로 유리되었을때 때마침 그물을 마셔서 감염되



사진설명 : 민물고기에서 분리한 被囊 유충, 이것을 먹었을 때 肝吸虫에 감염된다.

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음료를 통한 감염은 지극히 우연스런 현상이고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방법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흡충의 피낭유충은 물보다 무거워 물밑에 곧 가라앉으며 또 물속에서는 유리된 채로 오래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간흡충에 걸린 인구가 한국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학자들에 의하면 한국인구의 약 5%가 우리 간흡충에 감염되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즉 200만명가량 되리라 추측하고 있으며 다음번에 소개가 되겠지만 우리 사촌 폐흡충(肺吸虫) 환자와 합쳐서 약 300만명이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회충이나 편충보다 감염인구가 적어 그리 심각하게 생각지 않을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것은 선진대열에

나서기 위해서 국력을 한껏 모으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폐흡충과 함께 인구의 약 10%가 흡충병에 걸려 있으며, 이들 환자가 대부분 한창 일할 나이인 30~50세군이라는 점, 또 이들을 간호하는 사람이 한집에서 적어도 한두 사람은 있어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경제적 손실, 그리고 이들이 일을 못하는데서 오는 노동력의 감소등은 발전도상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적지않은 큰 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좋으니 꼭 민물고기를 날로 먹고 죽겠다」는 분이 계실가 하면, 또 「70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있으니, 그리 무서운 병도 아니다」라 하며 만용

을 부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간흡충증의 유행지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 부모형제나 친척중 우리 간흡충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분이 적어도 한두분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간흡충이 아마 원수같이 생각 되실것입니다. 우리 간흡충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잃고 또 쓸어져가는 가계를 보살피노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많으시겠지요. 참으로 미안하고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간흡충의 생존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합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여러분께서는 「문제아」를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당초에 「문제아」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없을 터인데, 일단 「문제아」가 생겨나면 「문제아」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도 먹고 죽겠다」느니 「70정생을 그렇게 살았어도 건강하다」느니 하는 물지작한 분들은 당장은 요행스럽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빠져도 실은 계속해서 「문제아」인 우리 간흡충의 증란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분들은 그 지역사회에 우리 간흡충같은 풍토병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데 지

극히 공로가 많은 분들로서 우리 간흡충으로서는 표창장이라도 드려야 할만큼 고마운 분들이지만, 그 지역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암적 존재이며, 주민 공동의 적이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간흡충이 만연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비단 자연조건이나 생태학적 조건뿐 아니라 이러한 주민들의 무지함, 무관심 그리고 미온적인 보건행정등 인위적조건도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도를 펴놓고 볼 때 남한에는 우리 간흡충의 점령지가 아닌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남한의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 큰 강의 유역과 이와 연결된 하천이나 호수, 작은 또랑이나 웅덩이, 개천할것 없이 물이 있는 곳이면 아무리 경치가 아름답고 인심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간흡충의 부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은 옛날부터 아주 능후한 유행지로 알려져 있어 어떤 고장은 주민의 100%가 걸려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70~80%의 주민이 우리 간흡충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으며, 국민학교의 귀여운 아동조차도 20%나 감염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답니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부교수·의박>